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2  
2012. March

## 봄의 길목 이기대 갈맷길

일상의 시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넘실대는 파도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봄의 길목 이기대 갈맷길!

그리고 충절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천혜의 자연 경관 이기대 갈맷길 산책로엔 두 기녀(妓女)의 조국애와 원혼을 달래는 '목풍우가 몰아치는 이기대' 라는 박상호 시인의 글귀가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 한국방문 외국 관광객 1천만명시대 일본 33.6%, 중국 22.7%, 미국 6.8%순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전년의 87만명보다 11.3% 증가한 97만4천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전명한 2011년 전 세계 외국방문객 증가율(4~4.5%)과 아시아태평양지역(5~6%)을 상회한 것이다.

2008년 68만명이었던 외래관광객은 2009년 71만명으로 크게 늘

어났다. 동 3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적 비중을 보면 일본이 33.6%로 가장 많았고 중국 22.7%, 미국 6.8% 등의 순이다.

증가폭은 말레이시아(57.5%)가 가장 컸고 인도네시아(31.7%), 홍콩(22.9%), 태국(18.6%), 중국(18.4%), 베트남(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한반도의 정세 불안과 구제역 여파, 서해공해 등 안 등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았고, 3월에는 일본의 내전과 원전사고 때문에 관광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한국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한류 열풍, 소규모 관광객 유치 등으로 6월부터 방한 수요가 회복된 후 8월과 9월 방한객이 각각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하반기에는 국내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 박정호 마케팅기획팀장은 "우리나라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은 만큼 올해는 양적인 성장보다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쪽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2015년까지 中관광객 100만 명 유치 '한중 수교 20주년' 맞아 올해부터 총력전 펼쳐

중국인 관광객이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 부상하면서 부산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중국 관광객이 지난 2006년 24만4천명으로 불과하던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0만9천명으로 5년만에 백 이상 급증했다. 전체 부산 관광객의 비중 면에서도 15% 수준에서 20%를 넘어섰다.

부산시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올해 60만명, 2014년 80만명, 2015년 10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우선 부산의 도시브랜드 인지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현지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채널과 지상파, 케이블방송, 여행잡지 등에 부산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 또 직항로의 개설 및 증편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자매 및 우호 협력도시를 확대하는 등 공식·비공식 교류의 폭도 대폭 넓혀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관광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매도시인 상하이 설명회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올해 안으로 난징과 다롄 등 주요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중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한류문화 체험과 소규모 관광, 해양체험 등을 위주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것도 언어소통과 숙박, 음식 등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 작년 김해공항 출입국 외국인 100만명 넘어

김해공항을 이용해 입출국한 외국인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출입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110만7천639명으로 전년도의 91만9천203명에 비해 2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출입국자 수는 352만4천313명(승무원 제외)으로 전년도 325만7천906명에 비해 14.8% 증가해 이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 입국자 수는 57만8천389명으로 전년도 46만2천688명보다 2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전체의 51.2%인 29만5천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4만9천53명), 대만(2만1천146명), 홍콩(2만3천119명) 순이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대만으로 전년도의 120명 대비 194.2% 증가했다.

우리 국민 출국자 수는 121만1천349명으로 전년도 111만964명보다 9.5% 늘어났으며, 33만9천67명(27%)이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고 일본(25만536명), 필리핀(16만2천762명), 태국(12만1천39명) 순이었다. 그러나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행 출국자 수는 전년도 34만5천177명 보다 25만565명으로 24.5%나 하락했다.

## 에어부산, 부산~청다오 매일 1회 운항 올해안 일본, 동남아에 2~3개 노선 추가 취항 예정

에어부산이 "오는 3월 19일부터 부산-중국 청다오를 매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 노선에 162석인 보잉기 737-400을 투입, 오전 10시 30분 부산을, 낮 12시 30분 청다오에서 각각 출발한다. 해외 노선 확대를 비롯해 항공기 신규 도입, 각종 서비스 확대 등을 잊 따라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에어부산 측은 "올해 안에 일본 및 동남아 2~3개 노선에 추가로 취항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도시 등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선 추가 등에 대한 현지의 논의가 60~70%가량 진행된 곳도 있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에어부산 측은 보고 있다. 일본 나고야 신규 취항과 1회 운항하고 있는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 운항 편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개 국제 노선(부산-후쿠오카·오사카·세부·대만·홍콩·도쿄)이 올해 중 모두 8~1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에어부산 측은 노선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추가로 10기 석 규모의 A320-200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도 에어버스 기종의 항공기를 도입해 늘어난 노선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까지 에어부산은 기존 항공기 수가 2대에 서 9대로 늘어날게 된다. 에어부산 측은 오는 2015년까지 항공기를 12대까지, 국제선도 19개 노선으로 늘려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약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예약뿐 아니라 발권까지 가능한 모바일 웹 사이트(m.airbusan.com)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다오 취항을 위해 기존 극문·영문·일본·중문(번체) 사이트에 이어 중문 간체 사이트를 새로 오픈, 중국 현지에서도 에어부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 日지진으로 한국관광 특수효과 3천억원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관광상품개발 필요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한국이 3천억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를 얻었다고 산업연구원(KIET)이 주장했다.

최근 산업연구원 이 '일본지진이 중국인 방한관광수요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작년 5~6월 일본 지진으로 유발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분은 모두 13만3천427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65%인 8만6천733명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 증분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액 1천650억원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총 생산유발효과는 2천935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관광산업에서의 직접효과는 1천781억원이고 간접효과는 1천154억원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3천653명이고 이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눠보면 각각 2천421명, 1천232명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단기적 방한수요 증가현상을 장기적, 안정적인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비자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청소년, 노년층, 한류 팬 등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례로 4대강 수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용 카지노를 운영함으로써 관광수입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부산, 국제 크루즈 중심항으로 부상 올해 크루즈 관광객 66차례 16만8천명 방문 예정

부산항이 국제 크루즈 중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4회, 7만6천명에 그치지만 올해는 6회, 16만8천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클럽 하모니가 국적선으로는 처음으로 1일 부산-일본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부산항을 기항지로 한 국제 크루즈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14만 규모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보이저호와 같은 초대형 호화 크루즈가 입항해 관광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한번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이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면세품 인도장 확장, 관광안내소와 기념품 판매소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한복을 착용한 크루즈 버디 배치, 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의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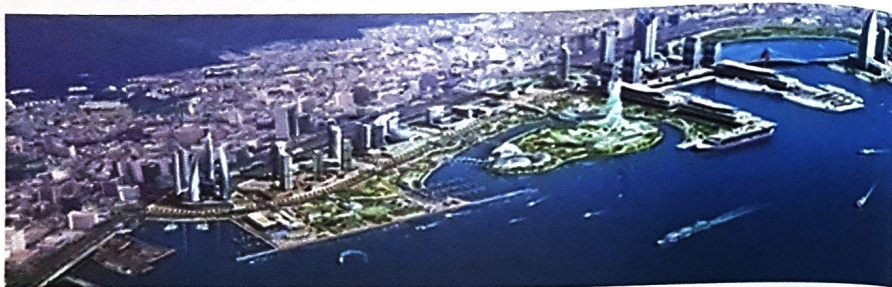
한 환영·환송 공연도 준비한다.

크루즈의 개별 자유여행객을 위해 이권빌 통역이 가능한 관광안내원을 관광객이 자주 찾는 남포동 일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이 동북아 국제 크루즈의 중심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공원·친수공간 공공성 강화 BPA "쾌적한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이 공원과 친수공간을 대폭 늘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그 동안 GS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보안, 개선해 온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성과 상징성 강화를 위해 아일랜드 주변을 에워싼 경관 수로를 약 1km 연장하고 아일랜드 부지를 17만㎡ 더 확장, 총 30만㎡로 늘렸다.

또 중앙에 집중돼 있던 대형 공원을 수변공간과 연계, 분산 배치해 북항재개발 사업지역 전체에 수변 문화공간과 녹지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형성, 친수공간으로서의 매력을 한껏 살렸다.

현재의 연안여객터미널은 기존 시설을 활용,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원도심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획 변경으로 북항재개발사업 공원 면적은 원래 계획에 비해 1만7,000여㎡가 늘어났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소방서와 파출소, 도서관, 교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유보지 개념의 공공 포괄용지를 남겨뒀다.

BPA는 조만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BPA 투자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 공원·친수 공간을 많이 확보해 부산시민들의 쾌적한 휴식처이자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영 기자



## 1·2백스코 '구름다리'로 연결 경관조명 설치, 6월 완공으로 제2도약

부산의 대표적 전시·컨벤션 시설인 백스코(BEXCO)와 인근에 새로 건립 중인 제2백스코를 연결하는 대형 '구름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백스코와 도로(APEC)로 건너편 시립미술관 옆에 짓고 있는 새 전시장(제2백스코)을 구름다리 형태의 공중보행 데크로 연결한다.

백스코 본관과 새 전시장을 잇는 공중보행 데크는 폭 15~24m 길이 85m로, 지난해 11월부터 백스코 앞 주차장 부지에서 제작·조립했다. 튜브 형태의 공중보행 데크 안에는 무빙워크 6대를 갖춰 보행자의 이동을 돕는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경관조명도 갖춰 밤마다 아름다운 빛을 선보인다. 이 구름다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색 볼거리로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 오는 6월 초 새 전시장 준공과 함께 가동한다. 부산시는 늘어나는 국제회의와 전시·컨벤션 행사에 대비, 지난 2010년 백스코 시설확충 공사를 시작했다. 국비와 시비 1천915억원을 들여 2만㎡의 새 전시장을 짓고, 본관 옆에 4천2석 규모의 공연장 '오디토리움'과 2천89대분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백스코는 새 시설을 확충하면 4만6천457㎡ 규모로 커진다. 각종 국제행사나 전시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연면적)은 21만3

천849㎡로 늘어난다. 백스코의 전체 규모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나는 것. 특히 4천2석의 실내 계단식 좌석을 갖춘 '오디토리움'은 대형 컨벤션, 기업행사,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주목 받고 있다. 2만여㎡ 규모의 새 전시장 역시 기존 백스코 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 초대형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다.

백스코는 시설확충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대형 전시·컨벤션 행사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새로운 시설 확충에 맞춰 4건의 대형 국제전시회를 직접 개발, 세계적인 전시회로 만들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원전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산업벨트 인프라와 기술력을 소개하는 '201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아시아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트 부산 2012 (6월7~11일)', 부산국제영화제의 높은 브랜드를 활용한 영상·사진·방송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2 부산국제사진·영상·방송기기전 (10월18~21일)', 해양플랜트 기자재와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2012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등이 그것이다.

김대현 기자

## 영진위 본사 사옥 올해 해운대 센텀 시티에 착공 부산시-영진위 업무협약 체결

부산 해운대 센텀 시티에 영화진흥위원회 본사 사옥이 올해 착공한다. 영진위는 내년까지 부산 이전을 마무리한다. 영진위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영진위는 지난 2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영진위 부산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의석 영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서둘러 매각하고 영진위 부산본사 사옥 설계와 착공을 올해 안에 끝낸 뒤 내년까지 부산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종합촬영소는 공매가 진행 중이다. 영진위 부산 이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2009년 승인됐지만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추진이 늦어졌다.

협약 핵심은 부산시와 영진위가 공동으로 부산종합촬영소를 건립하고 촬영소 안에 글로벌스튜디오를 짓는 것. 시와 영진위는 우선 부산 기장군 달음산 지락 77만6천83㎡(약 23만평)에 부산종합촬영소를 짓기로 했다.

종합촬영소에는 해외 수요 개발과 해외 프로젝트 유치에 위한 13만2천㎡(약 4만평)의 오픈세트장을 비롯해 초대형 첨단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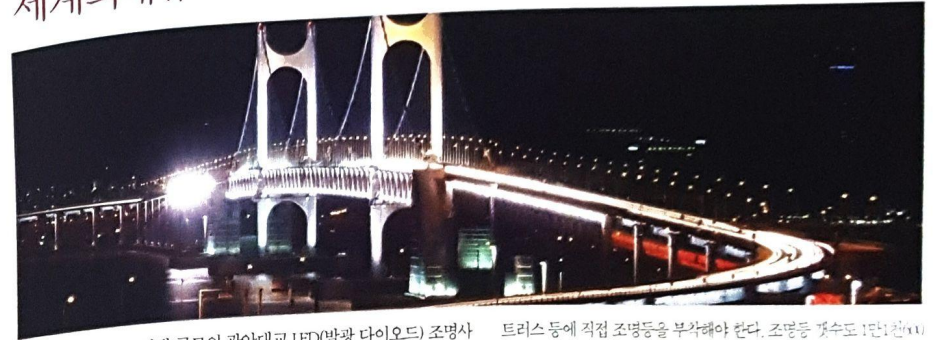
다목적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중소형 스튜디오와 제작·지원시설, 소품 제작 및 보관소 등도 짓는다. 사업비는 5천억원, 2015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종합촬영소 안에는 국내 최대 규모 최첨단 글로벌스튜디오를 짓는다. 남양주종합촬영소 스튜디오의 4배 이상 크기로 3D·홀로그래픽 등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2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영진위 업무협약 체결. 2. 20. 2010 부산시청. 사진(7쪽)

## 세계최대규모 광안대교 'LED 조명' 안전도 검사 착수



부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광안대교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사업에 안전도 검사를 착수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경관조명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조명등 설치가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용역의 핵심은 LED 등의 부착으로 바람 영향이 커질지와 교량 부식에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관조명은 나트륨 등을 바닥에서 위로 쏘아올리는 방식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LED 방식은 교량의 케이블과 체인,

트러스 등에 직접 조명등을 부착해야 한다. 조명등 1개도 1만1천㎏이 세트로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바람의 영향이 교량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며 "반드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에 용역에 착수한 것"이라며 "오는 4월께 결과가 나와 안전성이 검증되면 하반기부터 조명등 제작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끝낼 예정"이라며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불꽃축제 때는 화려한 광안대교 LED 경관조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5월 10~14일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오는 5월 10~14일 영화의전당 등지에서 개최된다.

영화제 조직위는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에 특색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영화제의 주제가 되는 '주빈국'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세계 영화사에 가장 공로가 큰 나라, 프랑스의 영화다. 세계 최초 영화인 '열차의 도착(뤼미에르 형제 감독)'이 프랑스 영화인 만큼 영화제의 새 출발을 다짐하기에 적합하다는 의미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프랑스 영화제의 주요 인물들 게스트로 초청해 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1969년 출범한 국내 최초 단편영화제다. 초기에는 국내 작품을 대상으로 하다 2000년부터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로, 2010년부터 국제단편영화제로 영역을 넓혀왔다.

한편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올해 행사의 출품작을 공개 모집하

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편 부문도 신설했다. 1인당 출품작 수는 제한이 없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http://www.bisff.org>)를 참고하면 된다



## 부산 해양주제 '바다의 소년 오대양' 애니메이션 만든다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 홍보에 기여

국내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다.

이번에 제작될 애니메이션은 부산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오대양'이 산중 해양미생물을 찾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오대양'과 함께하는 모험을 통해 해양이 지닌 무한한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 신항만, 국제크루즈터미널, 국립해양박물관 등 부산의 주요 해양거점들이 애니메이션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해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소년 오대양은 올해 4월까지 제작을 완료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산전시관에서 상영하는 한편 동영상 CD로도 제작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육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해양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갖고 자라나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TV에 해양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영도등대 등 8개 유인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 국토부, 등대여행서 발간 및 관광앱 제작 배포

국토해양부는 해안 경관이 수려해 국민들이 즐겨찾는 등대 가운데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8개 유인등대를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가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한 유인등대는 부산 영도등대를 비롯해 울산 간절곶등대,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등대, 인천 팔미도등대, 전남 여수시 오동도등대, 강원도 동해시 묵호등대와 속초시 속초등대, 제주도 우도등대 등이다.

이들 등대는 주변 자연경관과 역사성 등 지역 특성이 감안된 주제에 맞춰 스토리텔링 등 각기 차별화된 콘텐츠가 가미돼 개발된다.

(15면에 계속)



영도등대 ▶

## 부산의 등대 관광자원으로 활용, 788개의 유·무인 등대 곳곳에 산재

부산최초 제뢰등대 ▶



등대란? 등대는 불빛으로 선박의 뱃길을 알려주는 바다의 교통이자 항해에서 지친 선원들의 사막의 아시스 같은 존재다.

등대가 부산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안고 부산관광컨벤션뷰로는 '등대도시: 미지 상징화' 작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2009년 부산 해양청과 협약을 맺은 후 '젓병등대, 야구등대' 같은 히트작을 만들었고, 등대형 관광안내 데스크 제작, 등대 캘린더 제작(이상 2009년), 등대 세미나 개최, 태종대 등대 우체통 설치, 등대 기념품 제작(이상 2010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컨벤션뷰로는 조만간 젓병등대와 야구등대 주변에 우체통을 겸한 포토존도 설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부산은 등대와 매치시키는 전략이 타당한가'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컨벤션뷰로 김비대 사무처장은 "등대가 아니라면 어떤 것을 갖고 부산을 외국에 내세우고 팔아먹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등대가 갖는 속성, 총 화양, 리, 믿음, 배려, 무뚝뚝함 같은 것이 부산사람들의 특성과 어울리고, 상징화 사업을 해보니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풍차하면 네덜란드, 싱가포르하면 머라이언이 떠오르듯, 등대하면 부산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한다.

어떻게든 모양도 이야기도 다양한 부산의 등대는 해양문화 확산과 관광자원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바다의 이정표(里程標) 등대 이야기

기장군 대변리 서암마을 방파제에 세워진 젓병등대, 이 젓병등대는 부산관광컨벤션뷰로와 부산해양청이 2009년 9월 젓병이미지를 살려 높이 5.6m의 등대 상단부에 젓병꼴 모양을 만들고, 몸통부분엔 어린이가 114명의 손과 발을 핸드 프린팅하여 도자기로 구워 붙였다. 하단엔 참가자들의 실명도 새겼다. 출산을 국내 최저도시인 부산의 고민을 반영해 다산과 순산의 기원까지 담고 있다.

또 기장 칠암 방파제에 세워진 야구등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우승을 기념으로 방파제 옆의 등대 옆에 글러브와 야구공을 배치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야구등대가 들어선 후 칠암마을에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 주말이면 외지에서 온

## 부산 등대 불빛 세 배 밝아진다... LED로 교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부산지역 등대 17곳의 광원을 백열전구에서 LED로 교체한다고 7일 밝혔다. LED조명은 백열전구에 비해 전력 소비가 훨씬 적고 수명이 길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

부산해양청은 백열전구를 갖춘 기존의 해상용 등명기(등대에서 빛을 비추는 기계)를 LED등명기로 바꿀 경우 등대 불빛이 3배 가까이 밝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등대 식별거리도 기존의 9km

에서 14km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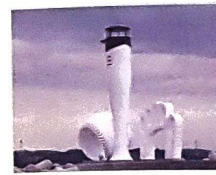
LED조명 교체에 따른 등대 시인성 향상으로 야간에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부산항의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LED 등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4면에서 계속>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등대 주변지역의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올레길 등 지역 탐방로에 등대를 주요 경유지로 포함시켜 등대가는 길 등을 조성하는 한편 인터넷카페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춘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등대 해양문화공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바다미술학교, 해양문화교실 등 바다사랑 함양교육과 함께 음악공연 및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국토부는 올해 등대 해양문화공간 구축사업의 선행사업으로 특색 있는 100여개 유·무인 등대의 스토리텔링 작업의 일환으로 등대 여행을 발간하고 스마트폰용 등대 관광 앱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총 39개 유인등대 중 이번엔 지정된 8개 등대를 올해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해양 친수문화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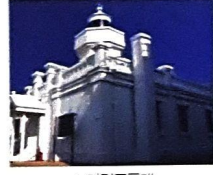
▲야구등대



▲젓병등대



▲오륙도등대



▲가덕도등대

광버스를 타고 200~300명씩 찾아온다고 한다.

야구등대가 들어선 후, 어린이들은 선착장과 방파제 주변을 수시로 청소해 어촌환경도 개선됐다. 컨벤션뷰로는 내년 초엔 야구등대에서 '롯데 우승 기원 고사'를 지내는 등 갖가지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대 관련 사업을 지원해 온 부산 해양청 해양교통시설과 한창수 주무관은 "등대는 해양문화 확산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 이미지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콘텐츠"라면서 "보다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해양청은 올해 가덕도 등대 해양학교, 체험교실, 편지공모전, 태종대 등대 갤러리 운영 및 야외 음악회 등의 사업을 펼쳐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 용두산 부산타워 전망대 등대기능 멀지 않아

부산시와 부산해양청, 컨벤션뷰로가 함께 추진 중인 '용두산 등대 희망 프로젝트'도 관심거리다. 용두산 꼭대기의 부산타워에 등명기를 달아 등대 기능을 부여, 등대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확보하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 1973년 부산타워 건립 당시 등대로 설계됐고, 등명기를 달 경우 높이 120m의 '메이도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등

명기는 부산타워 전망대 위 보게탑에 설치하기로 했고, 예산도 1억원이 확보됐다"면서 빠르게 내년 2월까지 등대가 꺼질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최초 제뢰등대

부산지방 해양청은 남구 감만동 신감만부두 끝단에 위치한 제뢰 등대는 건축기가 뛰어난 원형상태로 양호해 역사적 유물로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1905년 6월 대한제국정부 때 설치 97년간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로 부산항의 역사적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뢰등대는 붉은색과 검은색 선이 있는 높이 7m 석조원형으로 가스등이다.

한때는 부산항 북방과 제등대로 한차례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1년 신감만부두 건설로 등 위치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등대의 기능이 현재 정지된 상태다.

부산에는 1905년 부산 최초로 건립된 감만동의 제뢰등대, 1906년 최초유인등대 태종대등대, 1937년 부산항 수호신 오륙도등대, 1909년 러·일전쟁의 현장을 지켜본 가덕도등대 등 788개의 유·무인 등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김병오 편집장

# 어방쌔 가면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4월 27~29일까지, 38종목의 전시



제12회 광안리어방축제가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어방쌔 가면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주제로 어방그물잡기와 진두어회를 비롯해 38종목의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12회째 맞는 광안리어방축제는 이색 개막식과 경성좌수영성수군교대식, 축제주제관, 줄타기 공연 등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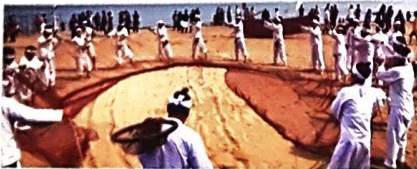
<http://광안리어방축제.kr> ☎ 610-4062

## 어방그물잡기와 진두어회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어방그물잡기와 진두어회는 작년과 같이 호메르스호텔 앞 넓은 백사장에서 매일 저녁 펼쳐진다. 관광객과 함께 백사장에서 대형 그물을 끌어 고기잡이 체험을 하는 동안 광안리 밤바다에서는 어선 32척이 야간 고기잡이를 재현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 그물잡기에는 사물놀이, 좌수영어방놀이 진송자, 깃발꾼, 피기(배우) 등 300여명의 출연진과 함께 드라마틱한 단막극을 추가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어방그물잡기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즐거운 체험과 함께 대형그물에서 살이있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먹는 행운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 수군교대식 등 이색행사 풍성

이밖에도 어방축제의 이해를 돕고자 축제장 한 가운데 60여명의 축제주제관을 설치해 애니메이션 상영, 어방히스토리 보드, 어방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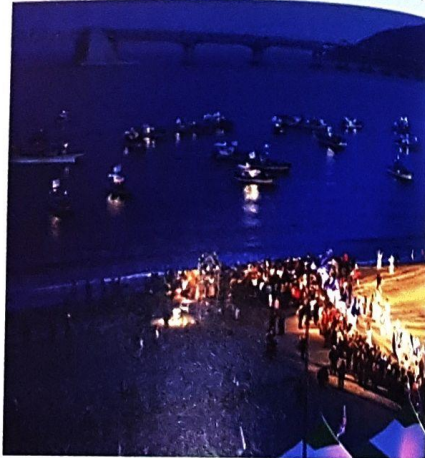


을 퍼포먼스, 닥종이인형 등으로 축제의 의미를 되새긴다. 축제주제관 옆에서는 매일 1~2회 취타대와 함께 경성좌수영성수군의 교대식이 체현돼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타일점점의 줄타기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평소 외국인이 즐겨찾는 광안리의 명성에 걸맞게 28일 토요일 저녁, 광안리를 찾은 국내외 젊은이들 대상으로 '어방월드와이드 파티'를 개최한다. 개최한다. 인기DJ의 믹싱음악과 함께 화려한 광대일쇼 등 다양한 이벤트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축제기간 3일동안 ▲어방글짓기 ▲어방그림그리기 ▲신나는 마술교실 ▲거리퍼레이드 ▲수영민속공연 ▲세계인민소 페스티벌 ▲소망등 달기 등 광안리어방축제에서만 즐길수 있는 특별하고 다양한 38종의 이벤트를 준비하여 역대 어느해 보다도 풍성한 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지 기자



# 올 봄 홍콩 관광객 1만명 유치 적극 부산시·홍콩 6대 여행사 MOU

부산이 다가오는 봄 시즌을 가늠해 홍콩관광객 1만명 유치에 나선다. 에이부산의부산·홍콩 지방도시 증가에 따라 홍콩 관광객을 부산으로 적극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12~14일 홍콩을 방문, 홍콩 주요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와 MOU를 체결했다. 여행사는 ECL,홍타이, 머리아, 모닝스타, 홍콩 임은, 신플라이 등 홍콩 대표 여행사 6개 업체. 이날 협약에 따라 △홍콩 6대 여행사는 개별여행객을 제외한 패키지 관광객 2천명이상 모객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는 여행사의 홍보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 홍보물을 제공하고, 방한상품 홍보에 나서는 한편 홍콩여행사의 캠퍼어도 지원할 것

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홍콩 내 MICE전담 여행사를 직접 방문, 부산의 관광 자원과 회의인프라를 소개하는 '갯가리는 홍보마케팅' 활동도 펼쳤다.

강희진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홍콩프로모션은 그동안 서울, 제주의 경유지였지만 부산이 단독 여행지로서 매력에 알릴 수 있는 신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더욱 많은 홍콩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해남부선 길이 11.3km 폐선부지 공원화 추진... 부산시민위한 공원 및 관광자원 활용

부산시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무상 양여를 위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2억 원을 올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해운대 울림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간 11.3km(면적 29만8000m)이며 오는 2014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면 폐선된다.

시는 그동안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충과 동부산관광단지 주변 개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전체 폐선부지 면적 중 국유지(국토부 84.6%, 기재부 8.9%, 기타 0.4%)가 93.9%나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그동안 정부에 폐선부지의 무상 양여를 요구했으나 예상 감정가만 1100억 원 이상인 높은 재산가치와 현행 법률상 제약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국유재산법 등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국유지를 양여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시 입장에서는 대체시설을 내놓을 입장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시는 폐선부지를 공원 시설로 묶어 무상 양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뒤 무상 반환을 이끌어낸 하야리아 부대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국토부 관계자 등을 만나 폐선부지의 무상 양여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시는 부산-울산 철도 복선화사업이 지

난해 광역철도에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로 전환되기 전 까지 이미 시에서 1600억 원이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무상 양여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특별히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내놓을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시는 폐선부지를 무상 귀속받으면 오는 2015년까지 약 70억 원 을 들여 공원화 산책로, 자전거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오던트 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효영 기자



# 부산 갈맷길, 관광브랜드화 본격 추진 부산 순환 263km 9개 코스로 확정

부산의 갈맷길(부산갈매기 부산사람)가 짙은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 기존 21개 코스에서 9개 코스로 조정되면서 단절구간이 없는 순환코스로 재탄생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이 '갈맷길 700리 조성'과 관리운영 실시계획 수립 용역 을 완료함에 따라 갈맷길을 전국적인 명품 도로 만들기 위한 관광브랜드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갈맷길을 기존 21개 코스(312.5km)에서 9개 코스(263.8km·지도) 20개 구간으로 조정했다. 특히 코스간 단절구간을 없애 시외곽 순환코스를 완성했다. 지역명 중심으로 불리던 갈맷길 명칭도 제0코스 제0구간(예:제2코스 제2구간)으로 통일했다. 또 소요시간, 거리, 노면상태, 경사 등을 감안해 코스를 상·중·하로 등급화 해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0년 갈맷길 21개 코스를 발표했으나 단절구간으로 인한 코스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코스의 명칭도 통일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단절구간 없이 시 외곽을 순환하면서 부산 전역을 트레킹할 수 있도록 코스를 조정할 것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갈맷길 700리'를 관광브랜드화 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별 따라

달 따라 걷기' '갈맷길 월인3종 경기'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점포와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보완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갈맷길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제2코스(문태교-관암리해수욕장-오륙도 유람선착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 부산 갈맷길 코스, 보다 편리하게 재정비

부산지역 갈맷길을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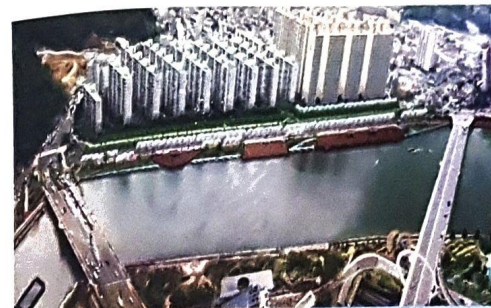
부산시는 '끊어져 있는 갈맷길 코스를 연결하고, 안전하지 못하거나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구간은 코스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갈맷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갈맷길'은 부산의 상징물인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로 바다와 산, 시내 등을 둘러보며 부산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해운대 동백섬과 광안리해수욕장 연결 등 6개 구간을 추가해 단절구간을 없애는 등 갈맷길을 모두 9개 코스 21개 구간으로 정비하는 '갈맷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실시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21개 코스였다.

시는 우선 접근성·쾌적성·안정성·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구간과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다른 갈맷길 구간과 연결하기 힘든 길, 해발 450m 이상 숲길 등은 갈맷길 구간과 연결하기 힘든 길, 해발 450m 이상 숲길 등은 갈맷길에서 빼기로 했다. 장산나들길 등 8개 코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단절구간 없이 갈맷길 전체를 코스화하고, 코스 명칭을 통일시킬 방침이다.

또 난이도(초·중·고급)를 구분해 골라서 걸을 수 있도록 갈맷길 코스별 등급표를 제시하는 한편 코스별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접근 가능한 지점 등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용객 설문통해서는 계절별 코스, 역사·문화·경관·체험 등 주제별 코스 등 다양한 분류 작업도 실시한다.

# 부산 동-관광명소 수영강변 경관테크조성사업, 10월 완공예정 서-낙동강변 친수공간에 노을나룻길, 3월 완공



▲ 수영강변 경관 테크

낙동강변 친수공간에 노을나룻길 ▼



부산 동쪽으로는 영화의 전당·APEC나루공원을 감상하고, 서쪽으로는 해남이를 보며 낙동강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전망 명소가 들어선다.

수영구청은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을 최근 수영강변도로에서 개최했다. 수영구가 시비 17억원을 들여 수영 현대아파트-힘성르네상스아파트 구간 수영강변 3곳에 너비 10-15m, 길이 70-100m 크기의 광장테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광장테크는 오는 10월 완공예정이며 수영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수영구는 지난 6월 수영교-수영힘성르네상스아파트 도로간 테마거리 조성을 완료했다. 광안리 해변을 지나는 자전거도로와 뱃나무·느티나무 등 수목2만여본을 갖춘 시민산책로를 조성한 것이다.

수영구는 "수영강변 일대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아름다운 수영강을 편안하게 산책하고, 휴식을 즐기면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하구도 최근 낙조관광지로 조성 중인 낙동강변 친수공간 이름을 '노을나루길'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명칭을 공모한 결과 사하구 주민 김영미(48)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다.

사하구는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낙동강 하굿둑 다대방향 램프-을 속도대교 구간 보행로를 확장하고 친수공간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낙동강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 다대방향 램프-강변타워아파트 0.31km 보행로가 기존 폭 1-1.5m에서 3.5m로 넓어진다. 강변타워아파트-을속도대교 1.5km 구간엔 주민들이 낙동강변을 따라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곳의 전망대도 설치, 명품 낙조를 전망할 수 있도록 꾸민다. 오는 3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2009년 공사를 마친 낙동강 하굿둑 구간 친수공간과 더불어 사하구·사상구 경제에서 대표해수욕장에 이르는 대표적인 낙조 관광벨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 부산시티투어버스 '쉘터' 조성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위한 승객 대기 시설이 설치된다.

부산시는 부산역과 해운대, 광안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송도 해수욕장 등 5곳에 시티투어버스 승객대기 시설(쉘터·조감도)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설은 한 민간업체에서 제작·설치 후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대신 이 업체는 대기시설에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공공디자인 심의를 열어 이같은 민간계약을 통과 시켰으며, 현재 협약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업체는 조만간 협약이 마무리되면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체 정류소 15곳 중 우선 5곳에 산뜻한 디자인을 입힌 정류소 대기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 시티투어버스의 이용객은 15만6천623명으로 2010년 14만4천423명 대비 8.5%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도 12억2천600만원으로 2010년 11억3천100만원 대비 8.5%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 빈도는 5%였다.

시티투어버스는 올해부터 2개 노선이 늘어난 6개 코스(주간 5개, 야경 1개)에 11대(1층짜리 버스 5대, 2층 4대, 오픈 탑 2대)가 운영되고 있다.



## 부산역 앞, 시민·관광객 위한 버스환승센터 운영 서면 롯데백화점 앞, 도시철도 하단, 노포, 사상역, 서구청 앞에도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앞에 버스환승센터가 생겼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차·도시철도·시내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 도로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시내버스 정류소를 한 곳에 모아 혼잡한 교통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한다.

환승센터는 그동안 중앙로에 세 군데로 분산돼 있던 시내버스(27개 노선) 정류소를 한 곳으로 모았다. 또 운행 방향별로 나뉜 버스가 정차하도록 설계했고, 버스 승강장에서 곧바로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버스환승센터는 특히 비·바람과 햇볕을 막아주는 길이 104m, 높이 3.6m의 병렬 쉘터(햇빛·비 가림 간지 대합실)도 갖추고 있

다.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꾀한 것도 특징. 시설 내부에는 대기 의자와 버스 도착정보시스템, 내부조명도 갖추고 있어 시민·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

김효영 부산시 교통국장은 "부산역 앞 버스환승센터가 생겨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시민의 환승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가용과 택시 운전자들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환승센터는 부산역 외에도 서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 도시철도 하단·노포·사상역 앞, 서구청 앞 등에도 있다.

## 해운대 15번 꺾어진 길 '십오굽이 달맞이길' 연내 완공

지난 2002년 해운대 달맞이길을 산책용 테마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십오굽이 달맞이길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대상으로 선정돼, 국시비 18억원을 들여 착공 10년만에 오는 9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구간은 예로부터 '15번 꺾어진 길'이라 하여 '15곡도'로 알려져 왔으며 해운대와 송정을 잇는 부산의 대표적인 경관 도로로 사랑받아 왔다.

공사가 완료되면 미포에서 출발해 달맞이 해월정, 송정 입구까지 7.8km 구간, 목재 도로 위로 해운대 경치를 감상하며 편안하고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구간에는 미포와 해마루 사이 등에 도로와 벤치, 쉼터 등의 시설은 일부 갖춰져 있으나 총 구간 가운데 1.8km가 미완성인 채 남아 있는 상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십오굽이 달맞이길이 완성되면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행정안전부의 '우리마을 녹색길 지킴이단'도 단적으로 경기체험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등 전국적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 해운대 청사포가는길 942m 도로 15년만에 개통

부산 해운대달맞이길 관광도로와 청사포를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가 착공 15년만에 준공, 개통됐다.

개통된 도로는 총 길이 942m, 너비 20m 규모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124억7천만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청사포 주민들이 주 도로로 이용하는 이곳은 해운대달맞이길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그동안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도로착공 이후 사업비 확보와 청사포 철도이설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추진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5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도로 개통으로 청사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청사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남천동 벚꽃 이달말, 하동 심리 벚꽃길은 다음달 8일 절정

부산과 진해는 다음 달 5일, 하동 심리벚꽃길은 8일께 벚꽃이 절정을 이루겠다.

부산기상청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2일 정도 늦고, 지난해보다는 2일 정도 빠르겠다고 7일 예보했다. 벚꽃의 개화는 오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안지역은 3월30~4월2일, 내륙지역은 4월3~9일이 예상된다. 부산 남천동 거리 벚꽃은 오는 29일 개화가 시작해 다음 달 5일께 절정에 이르렀다.

경남 진해 벚꽃 군락지도 오는 29일 개화가 시작하고, 하동 상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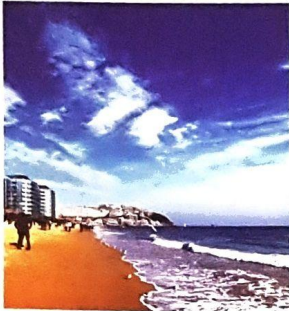
심리벚꽃길은 다음 달 1일 꽃망울을 터트리겠다.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은 4월5~6일, 해안지역은 4월6~9일, 내륙은 4월10~16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 남천동과 진해 여좌천은 4월5일께, 하동 상계사 심리벚꽃길은 4월8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기상청은 2월 평균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2.0도 낮아 1987년 이후 가장 추웠다고 밝혔다.



「관광부산」이 선정한  
부산관광지 9경  
「부산 九景」



해운대

해운대는 신라말기 최치원이 해인사로 들어가던 길에 이곳에 이르러 절경에 감탄한 나머지 동백섬 임반위에 자신의 호를 따서 海雲臺라 세긴 데서 비롯 되었다고 한다. 부산하면 먼저 해운대를 떠올린다. 여름 해수욕철이면 국내외에서 4000여만명 인파가 넓은 백사장을 꼭 메워 이들이 사용하는 파라솔 수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따라서 온천, 숙박, 유흥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다. 특히 2005년 세계정상들이 찾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지금도 하루 4~5000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근에는 동백섬과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 수족관이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 축제, 북극곰수영대회, 모래 작품전, 바다축제 등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를 가로 지르는 광안대교(다이아몬드브릿지)는 국내 최대 해상 복층교량으로 밤이면 10만여개의 조명시설이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 놓는다.

광안리는 3차원의 빛 미술관이다. 세계적 유명작가의 작품6점이 해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대교를 배경으로 '인류의빛', '문화의빛', '축복의빛' 등 3가지 주제의 레이저 영상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 또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는 '낭만의거리', '해맞이거리', '젊음의거리', '축제광장' 등 구간별로 색다른 분위기로 연출한다.

아울러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물거리다. 300여개의 민락회타운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또 있다 1.4km의 해안을 따라 낭만이 깃든 카페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리고 매년 10월이면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때는 국내외에서 150여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한다.



태종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名勝)제17호인 태종대는 오륙도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다.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태종대의 암석 절벽은 웅장한 수림과 파도와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

전설에 따르면 신라 태종 무열왕이 활을 쏘아 과녁을 맞혔다 하여 태종대라 하였다고 한다.

해안에 깎아세운듯한 벼랑과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부산의 자연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가장 볼거리가 많은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에는 신선대와 망부석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에는 천연공동벽화 오리부리릉, 세뿔롱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 등대자갈마당, 태원자갈마당, 감지자갈마당 앞에 탁 트인 절경은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린다. 봉래산을 끼고 해안가를 따라 걷는 절영해안 산책로와 절영전망대, 낚시터, 쉼터, 해녀촌에서는 볼거리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유엔기념공원

남구 대연동에 위치해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1951년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한 개계우일의 유엔묘지이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가슴아픈 역사에 대한 고충과 함께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국제 협력 정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큰 곳이다.

3년동안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25개국 175만4400여명이 참전해 433500명이 희생됐다. 그 중 2300여명의 전사자가 이곳에 안장된 모역과 위령탑, 건물장경 추모영구 등이 있다.

매년 10월24일 유엔의 날에는 부산시민과 참전용사 및 유가족, 참전국 대사 등이 참석하여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피난온 사람들이 한 옥치에서 갖고온 책,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책,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책들을 수집,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책방골목이 형성돼 지금은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다.

이곳은 한마디로 책의 바다다. 새책과 헌책, 참고서, 보스트살도, 도서, 원서와 사진 등 많고 많은 책들이 모여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책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 오면 추억을 사고, 기억을 사고, 인연을 사고, 운명을 산다.

지난날 운동 가난으로 누렁누렁 키워진 우리에게 전방이 지난 자리에 오직 살아남겠다는 악착과 공부만을 해야겠다는 염원이 남겨진 아흔이 서린 곳이다. 헌책을 살 수 있는 곳은 곧 헌책을 사주는 곳이기도 했다.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과 금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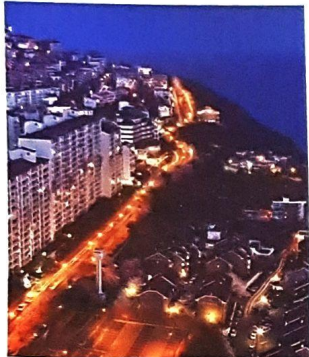
40계단

'계단은 지상에서 하늘로 또는 현재에서 과거로 연결해주는 사다리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벗고 우주와 영적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도 하다. 꼭 그곳에 닿아야겠다는 간절함을 품었을 때만 볼 수 있도록 높은 계단으로 사사로운 시선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전 당시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 있는 40계단을 테마로 그 시절의 특색을 살린 문화거리다. 그 시절 피난민의 애환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에 40계단 문화관이 있다.

몸과 시신을 압도하는 계단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다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가파르게 누운 계단, 아코디언 켜는 사내 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다. 그때 그들의 어려운 삶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넘어질듯 엮어질듯 가파른 삶을 살다간 사람들과 마주칠 것만 같다.



한국의 몽마르뜨 달맞이길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이 있다면 해운대에는 해안을 따라 청사포 까지 이어지는 달맞이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을 누군가가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달빛에 젖어 걷는 길이라 해서 문텐로드(Moonlan Road)라고도 부른다. 초승달이, 보름달이 떠도 그리고 그믐달이 떠도 달맞이 길에서 뜨는 달은 이름답다는 길. 동·남 쪽을 향한 해안 풍경은 세상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 명품길. 이길을 걷다보면 몽마르뜨 갤러리등 19곳의 갤러리가 산재해 있고 여명의 눈동자를 쓴 작가 김성중 추리 문학관이 있어 전국에서 문학도 들이 즐겨 찾고 있다.

대한팔경중 하나로 손꼽히는 해월정(海月亭), 이곳 광장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작가들의 창작 작품의 열린 공간인 프리마켓 예술시장이 문을 연다.

8월이면 달맞이 언덕 축제가 열리는데 한식, 양식, 정통요리와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맛집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처럼 이곳 달맞이 언덕에서는 멋과 낭만이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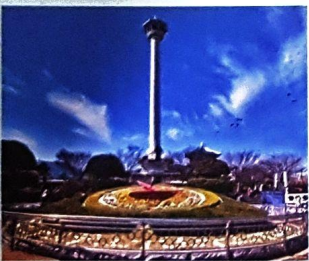
자갈치시장

'오이스, 보이소, 사이소' 역척스런 경상도 자갈치 아지매의 생활터전, 새벽과 아침을 잇는 공동 어시장과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모습에서 부산의 아침은 열린다.

자갈치시장은 이 지역에 자갈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생활이 어려워진 아낙들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키워낸 이곳에서는 오늘도 옛 그대로 답습하는 아낙들이 대견스럽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건어물의 30~50%가 공급되는 동남아시아 최대 어시장으로 매일 300여종이 넘는 어류가 중개인의 목소리를 타고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용두산공원

지방 기념물25호인 용두산공원은 예로부터 소나무가 울창하여 송현산으로 불리다가 다시 지금의 용두산 공원으로 불리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만평이 넘는 용두산 공원내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백산 안희재 선생의 흉상, 팔각정, 꽃시계 등이 있고 매년 1월 1일에 타종식을 거행하는 부산시민의 종이 있다.

또한 부산의 명물인 높이 120m의 부산 타워에서 부산시내는 물론,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를 조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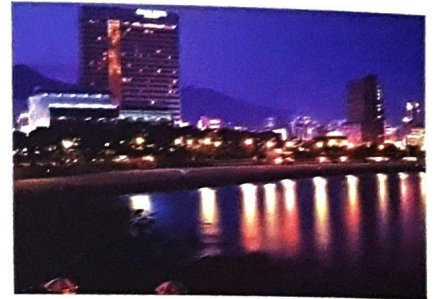
또 2011년부터 이곳에 외국인 및 내국인을 위한 "부산 관광 쇼핑센터"를 개장, 운영되고 있다.

김봉오 편집장

## “부산의 멋진 야경 이름 찾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대표하는 이름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busan.go.kr) 또는 부산문화관광 SNS인 트위터(tourbusan), 페이스북(tourbusan), 미투데이(tourbusan1)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작품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0일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발표. 최우수상(1명)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수상(2명)과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장려상(3명) 각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참가상(5명) 각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 첫째 주 일요일마다 관광명소서 '별' 만나기

부산광역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부산의 명소에서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며 우주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2012년 찾아가는 천대 별 운영한다.(표 참조)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후 3~10시 해운대해수욕장을 시작으로 APEC 나루공원, 온천천, 용두산공원, 송도해수욕장 등 부산의 명소를 돌며 진행한다.

행사 당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천체사진을 통한 궁금했던 우주알기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태양관측 △천문지도사의 재미있는 천체강의 △우주과학 영상물을 통한 우주 탐험 △천체망원경을 통한 달, 행성 관측 등으로 진행된다.

### ■ 일정

회차	날짜	시간	장소
1	3월 11일	오후 3~10시	해운대 해수욕장
2	4월 1일	오후 3~10시	APEC 나루공원 영화의 전당 앞
3	5월 6일	오후 3~10시	온천천 선착로
4	6월 3일	오후 3~10시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근처
5	7월 1일	오후 3~10시	송도해수욕장 천수궁길 중앙무대

문의 : 610-3221-7

## 불꽃축제 · 바다축제 포스터 공모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 위원회는 최첨단 불꽃쇼인 제8회 부산세계 불꽃축제 대 대표적 여름축제 제17회 부산 바다 축제 의 포스터를 다음달 2일까지 공모한다.

출품자격과 출품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국내외 미발표 작품에 한해 개인 또는 팀 자격으로 출품 가능하다.

작품 규격은 △부산세계불꽃축제 가로 5cm, 세로 78cm, △부산 바다축제 가로 40cm, 세로 63cm 크기이다.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festival.busan.kr)에 접속해 출품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bss2@r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축제별로 대상 1점(10만원), 우수상 1점(3만원), 장려상 1점(10만원), 특선·입선작 다수를 선정할 예정이다.



## 해운대 해수욕장일대, 4계절형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업권 손실보상금 예산 32억 원을 확보

부산시가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의 종합적인 이용 및 4계절형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업권 손실보상금 예산 32억 원을 확보, 해수욕장 앞 미역양식어업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미포어촌계와 우동어촌계에서 운영했던 미역양식 어장 20ha씩 총 40ha, 시는 오는 8월까지 이들 어장에 대한 감정평가(폐업 조사용역)를 실시한 뒤 연말까지 어업손실보상을 매듭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미역양식어장은 주변 어업인들의 주요 수익원이자 수산물 생산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터라 이번 어업권 정비계획은 매우 어렵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어장 폐쇄 추진 배경에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각종 해양관광 개발사업 등이 양식어장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김민선·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돼 있는 해운대 일원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해양레저 스포츠교육센터,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등의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해양관광 및 문화축제 등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4계절형 해양레포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시급했지만 해

수욕장 앞 양식어장 탓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심지어 요트대회등 각종 스포츠 행사 때마다 양식어장으로 인해 대회 수역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천혜의 해안경관이다 해운대 특급호텔 등 우수한 숙박 인프라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요트대회 등을 준비하는 시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보다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수역을 활용할 여건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해마다 10월 개최하는 부산컴 세계여자매치리스 요트대회의 수역 설정을 기존의 누리마루 APEC하우스 앞바다 일대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요트의 향연을 즐길날도 머지않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의 어장으로 인해 대회 수역 설정에 골머리를 싸매야 했다.

또 시는 오는 5월 처음으로 개최하는 부산스피드캡국제요트대회역시 해안으로 최대한 가깝게 대회 수역을 옮기기로 했다. 이 대회의 수역은 오류대 일대를 연결해 먼 바다를 돌아오는 항로로 잡혀있었다.

해운대구는 "이번 국가사업 지정으로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운대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와 일본 후쿠오카시가 공동으로 수도권지역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시는 2012. 2.17(금) 서울롯데호텔에서 양국의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일환으로 서울시 현지 여행사 및 언론사 관계자를 초청 공동관광설명회 행사를 개최한다.

양 도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여 온 「부산·후쿠오카 아시아 게이트웨이」 사업 일환으로 한국, 일본의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활동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부산·후쿠오카의 도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관광설명회는 양 도시 관광국장을 홍보단장으로 부산시 11명, 후쿠오카시 6명 등 총 17명의 홍보단이 참여하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 도시 전통공연단 12명도 함께 참가한다.

부산시 홍보단은 2월17일 서울 소재 관광관련 주요기관 대표들을 초청하는 오찬간담회에서 부산시의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지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계하는 관광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2월17일(금) 17시에 시작되는 관광설명회에는 서울시 현지 언론, 여행사 등 관계자 120여명을 초청하여 양 도시의 공동관광홍보영상물(주말이국)을 상영 하며 도시별 관광자원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소개한다.

특히, 부산·후쿠오카를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공동 관광 상품을 소개하여 부산·후쿠오카 방문을 희망하는 많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양 도시의 홍보를 당부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부산과 후쿠오카를 경유토록 요청한다.

부산·후쿠오카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라레식 중국 등을 대상으로 공동 관광설명회를 추진하여 많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왔으나, 금년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의 수도권을 타겟으로 각각 국내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일장 서는 등 양 도시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운대(영화의 전당) '기네스북 등재'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이 기네스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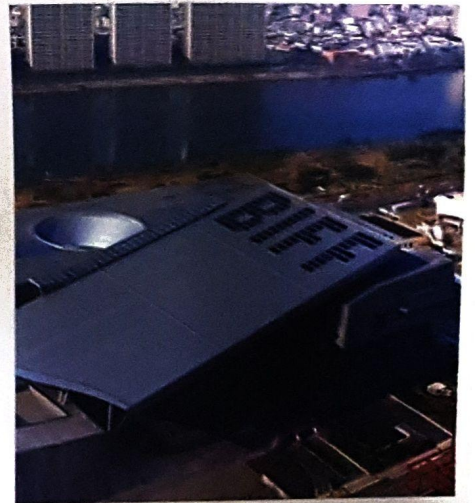
부산시는 최근 기네스북 측으로부터 영화의 전당 빅루프를 세계 최대 캔틸레버 지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네스북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영화의 전당의 웅장한 지붕은 빅루프(162.53x60.8m)와 스몰루프(99.2-120x65.8m) 등 2개의 루프로 이뤄져 있다.

마치 물결치는 듯한 수려한 조형미와 함께 루프 안쪽에 장착된 수만개의 LED 조명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기네스북에 등재된 빅루프는 지난해 3월 최대 난공사였던 상량식 때 리프트 업 공법이란 특이공법을 사용, 세계 최강의 트러스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장면을 연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화의 전당 빅루프의 기네스북 등재로 해운대구 센텀시티는 세계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점과 함께 2개의 기네스북 등재 건물을 보유하게 됐다.



### 3월부터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 탐방체험장 운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탐방체험장이 3월부터 운영된다. 부산시는 탐방체험장 조성공사를 3월에 완료하고 선박 탐방 프로그램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탐방체험장 시설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관리하고 선박 탐방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탐방체험장은 낙동강 하구의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탐방, 탐조, 생태교육·체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됐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1211-1번지 일원의 전체면적 1천㎡에 ▲탐조·전망대를 포함한 승선 대기실(지상 1층) ▲생태교육실, 습지교육, 자료실(지하 1층) ▲선착장, 저류조 생태복원지, 잔디광장(야외) 등의 시설을 갖춘다.

탐방체험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분노 해양투기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탐방체험장 완공과 함께 시작될 선박 탐방 프로그램은 낙동강 하구 특 특 탐조 체험과 나무터널 탐사하는 물길탐사코스가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봄과 여름에는 갯벌에 서식하는 생태계를 살펴보는 갯벌관찰코스와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모래사주인 맹금머리, 백합동, 도요동, 장자도, 신자도 등을 탐방하는 수로탐사코스가 마련된다.

가을에는 배 위에서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와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를 볼 수 있는 철새탐조코스 등 계절별 탐방코스를 운영한다.

탐방 선박은 토·일요일 1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주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상시 예약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부산시는 이 프로그램을 1년간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탐방체험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당 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부공해 차량인 전기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 부산시, 낙동강 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추진 생태관광활성화로 수익 되돌려주는 선순환기능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이 올해 추진된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37.71km에 대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을숙도 하단부, 장자도, 대마동, 신호대교 부근 등이 포함돼 있다.

람사르 습지는 지난 1975년 발효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록·보호되는 습지를 말한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가입했다.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록된 한국의 습지는 대암산 용늪, 우포늪, 순천만 등 현재 17곳(176㎡)이다.

부산시는 곧 환경단체, 어민 대표, 학계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등록 시기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주기개(부산대 교수) 명예센터장은

"낙동강하구는 철새의 다양성, 지형적 독특함, 인간의 타전, 도심 속 습지, 문화적 유산 등을 다졌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소 미온적이던 부산시가 람사르 습지 등록에 적극 나선 것은 올해 4대강 사업이 준공되고, 습지 등록 이후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수협 하단어촌계 관계자는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면 생태관광이 활성화 돼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영세 어민의 조업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도 입장을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 송교욱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경제와 생태가 배치됐는데 이제는 생태관광이라는 개념 아래 서로 윈윈 하는 시대"며 "현명한 이용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되돌려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씨티센터

부전동에 위치한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씨티센터는 2011년 10월 오픈한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아코르의 국내 10번째 호텔이다.

17층 규모의 건물 중 6개층(3-9층)은 부산 지역 의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성형, 피부, 한방 등 12개 과목을 진료 및 운영 하는 '스마트 병원'이다. 그 위 10-17층은 깔끔한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로 높은 영업수익률을 자랑하며 가장 성공적인 이코노미 비즈니스 호텔의 대명사가 된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씨티 센터' 호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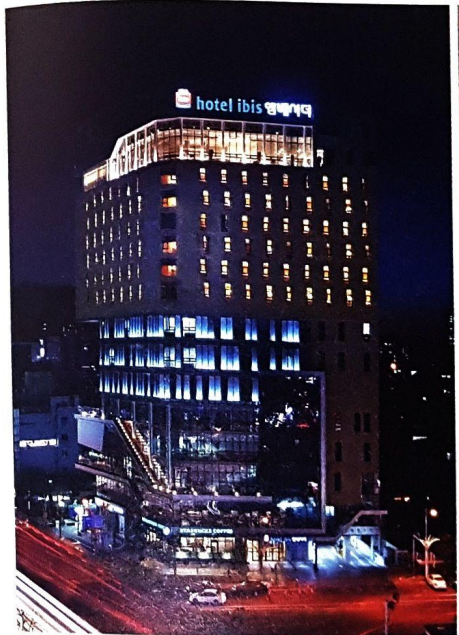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은 2003년 국내 최초로 서울 강남 대치동에 제 1호로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을 오픈한 이래 2006년 서울의 다문타운 중심지 명동에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을 오픈하였고, 2008년 수원에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을 오픈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서 10만원대 객실 요금으로 가격 대비 특급 호텔보다 높은 고객 만족도면 평균 객실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여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 사업 진출 열풍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씨티 센터'는 병원과 호텔을 접목 시켜 한류 비빔을 타고 한국 의료를 찾아오는 의료 관광객을 겨냥한 국내 최초의 건물이다. 병원과 호텔의 입구는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도 각각의 입구에 따로 설치되어 있다.

호텔 전용 안내 데스크가 있고, 10-16층은 호텔 객실, 최상층 17층에는 메인 로비, 20 ~ 100명 규모의 회의실 및 연회장, 한국 최초의 건강 컨셉을 도입한 레스토랑 테이스트, 바 랑데뷰,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 처리가 가능한 셀프 비즈니스 코너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또한 24시간 프린트 서비스, 전 객실 초고속 무료 인터넷 및 LCD 평면 모니터, 개별 방 7년방 조절 기능, 10층 코인세탁실 및 일회용품 자판기 등 최첨단 설비로 고객의 편의를 돕는다.

엠베서더와 아코르는 국내에서 독점 파트너십에 의해 서울, 수원, 대구, 부산, 창원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10개 계열 호텔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엠베서더 창원 시티세븐,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노보텔 엠베서더 대구,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씨티 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어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체인 호텔 운영 호텔 전문 기업이다.

\*문의 및 예약: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 씨티센터 051-930-1100





# 테이블 에티켓

## 1. 식사를 하기 전

- ① 식사 전에 얼굴이나 머리를 만지거나 다리를 포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② 음식을 먹을 때 상체를 지나치게 앞으로 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③ 식탁 위에 팔꿈치나 손을 얹어 놓지 말아야 합니다. 포크나 나이프를 손에 든 채 식탁 위에 팔을 얹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 ④ 다리를 크게 벌리거나 허리띠를 풀어놓는 등 기지개를 펴는 등의 큰 동작을 하는 것은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 2. 나이프와 포크사용

- ① 식탁에 놓여 있는 나이프와 포크는 바깥쪽에 놓여 있는 것부터 사용합니다.
  - ② 식탁에 놓는 스푼과 나이프는 보통 각각 3개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요리를 듣게 되는 경우는 요리가 나올 때마다 나이프 또는 포크가 따라오게 됩니다.
  - ③ 디저트의 경우도 그것들이 서브될 때 나이프나 포크가 같이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 나이프와 포크는 보통 3개입니다. 생선은 고기에 비해

연할 뿐 아니라 맛도 섬세하여 동체 나이프나 포크는 맛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⑤ 생선용 나이프, 포크와 날과 자루 부분에는 꽃모양 등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기용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옛날부터의 습관입니다.

## 3. 바닥에 떨어뜨린 포크나 나이프

- ① 바닥에 떨어뜨린 나이프나 포크등을 줍거나 닦아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직접 줍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웨이터를 불러 줍도록 합니다.
- ③ 떨어진 것을 직접 줍기 위하여 의자를 뒤로 물릴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으며 식탁에 턱을 부딪히는 등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냅킨이나 나이프, 포크를 줍으려고 할 때는 남자가 그것을 집어서 웨이터에 넘겨 주면서 여성을 대신해 세정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통 가정에 초대되었을 때는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자신이 집어 올리고 주인에게 다른 것을 가지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 4. 손에 든 나이프는 바로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손에 들고 있는 나이프나 포크를 바로 세워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너무 열중하여 포크나 나이프를 바로 세워서 든 채 팔꿈치를 탁상에 올려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입니다.
- ② 포크로 밥을 먹을 때 포크 등에 나이프로 밥을 눌러 붙인 다음에 입으로 가져와 먹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 ③ 포크는 요리를 떠서 먹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포크의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 5. 식사가 끝나고 나면

- 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나이프나 포크는 접시의 중앙에서 좌측으로 뒤어서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이 상례입니다.
- ②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놓는 방법으로 웨이터에게 식사를 끝냈는지 여부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③ 식사가 끝나면 나이프는 날을 자기 쪽으로 향하여 바깥쪽에 놓고 포크는 안쪽에 놓아둡니다.
- ④ 식사 도중에 대화를 할 경우는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가장자리에 팔자형으로 걸쳐 놓거나 접시 위에 팔자형으로 놓아 둘 수 있으며 제2의 방법은 포크는 접시 가장자리에 앉아서 걸쳐놓고 나이프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시 위에 놓아 둘 수도 있습니다.

## 6. 냅킨은 손수건이 아닙니다.

- ① 냅킨은 식사 도중 양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이외에 입을 닦는 다든지 손가락에 스스 등이 묻었을 때 닦기 위한 것입니다.

② 냅킨을 펼 때는 무릎 위에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이 자기 쪽을 향하게 하여 놓습니다.

③ 양복 단추에 간다든지 목에 가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냅킨에 우스갯소리가 없도록 입주위를 가볍게 닦아 주는 정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 7. 식기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 ① 육류용 접시, 샐러드 및 빵을 담은 접시 등은 웨이터가 놓아둔 상태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샐러드접시를 중앙으로 옮겨 먹은 경우 주 요리를 서브할 장소가 없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②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웨이터가 차우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접시를 큰 접시 위에 얹어 놓는 다거나 각 접기 옆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8. 식사 중 자리를 뒤흔들 때

- ① 식사 중에 자리를 뜨는 것은 옆 사람에게 장애를 줄 수 있고 음식이 식거나 서브 순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식사 도중 자리를 뜨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화장실에 다녀온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③ 냅킨은 의자에 놓는 것보다 적당히 접어서 식탁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나가는 것이 다시 돌아 오겠다는 표시가 됩니다. 포크와 나이프는 팔자로 걸쳐놓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 Plus Tip

테이블 착석 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 테이블에 앉을 때는 오른쪽이 상석이며 남성보다 여성을 우대합니다.

### 올바른 냅킨 사용법!

- 냅킨을 접시 옆에 두고 사용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며, 사용한 냅킨을 처음과 똑같이 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용한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 무턱대고 조미료를 뿌리지 마세요!

-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가장 맛이 좋은 상태에서 요리가 나오므로 맛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조미료를 뿌리지 않아야 합니다.
- 특히 훔파티라면 호스테스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부산롯데호텔 신임 대표이사에 송용덕(주)롯데루스 대표이사 선임

지난 3일 2012년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호텔모스크바의 현지법인인 (주)롯데루스의 송용덕(宋容德) 대표이사가 (주)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겸 (주)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 송용덕 신임 대표이사는

1955년 서울 출생  
 1973년 03월 - 1977년 02월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1982년 03월 - 1984년 06월 경희대 대학원 관광호텔경영 석사  
 1989년 03월 - 1991년 01월 미국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대학원 관광학과 졸업(M.B)  
 1994년 03월 - 1999년 06월 경기대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04년 06월 - 2005년 01월 서강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79년 11월 - 1993년 04월 (주)호텔롯데 판촉팀장  
 1997년 03월 - 2000년 07월 수원과학대 항공관광과 교수  
 2006년 02월 - 2007년 01월 (주)호텔롯데 롯데호텔월드(잠실) 총지배인  
 2007년 02월 - 2008년 01월 (주)호텔롯데 롯데호텔제주 총지배인  
 2008년 02월 - 2011년 01월 (주)롯데루스 호텔본부장  
 2011년 02월 - 2012년 01월 (주)롯데루스 대표이사 직무  
 2012년 02월 - (주)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호텔 곳곳에서 열기와 의욕이 느껴지고, 직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대적인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리에 추진해 오면서 하나씩 축적된 역량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동호 전임 대표님께서 대단히 큰 선물을 주고 가셨구나 하는 고마움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 주신 전임 대표님의 업적을 기반으로 가장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부산롯데호텔의 주역들과 함께 그 원대한 꿈을 완성시켜 나가는 도전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텔롯데와 경직을 맡으며 더욱 통일되고 한층 강화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우리 부산롯데호텔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임무에 앞장 서겠다는 각오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부산과는 처음 인연을 맺게 되지만, 그동안 서울롯데에서 판촉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잠실과 제주호텔 총지배인을 역임하면서 판촉과 영업 부서의 경험과 정서를 오랜 기간 경험하고 체득해 왔습니다. 우리 롯데 최초의 해외호텔 진출 첫 작품인 모스크바호텔 초대 대표이사로도 선임되어 글로벌 명문호텔 반열에 오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부산롯데호텔에도 쏟아 부어 버리지 않은 미래에 글로벌 명문호텔의 반열에 올려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우리 호텔은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유대의 끈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의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자 가장 위력적인 성장 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와 사가, 사와 노가 서로를 인정해 존중하며 합의와 협력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님을 저 역시 오랜 조직생활을 통해 배워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롯데호텔 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생산성이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룩해 낸 선진화된 노사문화가 더욱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노사관계 안정화는 저의 경영철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요체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위에서만 미래를 설계하고,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노사 모두 새로운 가치 창출이 노사의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진리가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가치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된 일터로 일구는데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롯데호텔의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반드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뉴스타트 2012!

우리 호텔의 재탄생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3월 30일, 그날을 위해 남은 기간 모든 부서와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꼭 성공적인 1층 오픈식이 될 수 있도록 전력과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조직과 회사 발전의 공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헌신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롯데호텔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이 길에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되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롯데호텔

## 갖고 싶은 IT-Tem으로 정한다 부산롯데호텔 '스프링' 패키지

부산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양한 볼 맛이 아이템들로 구성한 '스프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봄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향수, 스카프, 등 마사지를 한 아이템으로 하여, 잇템(it-te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이번 봄 상품의 특징은 갖고 싶은 선물 선택함에 따라 객실이 자동 결정된다는 것.

구지 앤비 향수나 스와로브스키 아우라가 제공되는 '피플러버' 상품은 스탠다드룸과 함께 구성되며, DAKS 봄신상품 스카프와 함께 어우러진 '스카프 마니아' 패키지는 하이힐러스룸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클럽라운지 서비스와 de L SPA의 테라피스트가 제공하는 등 마사지가 함께 구성된 '힐렉스 마사지' 패키지는 클럽힐렉스룸과 함께 엮여져 있다. 가격은 23만원부터 (세금 및 봉사료 별도)

http://www.lottehotelbusan.com 부산롯데호텔 객실예약 : 051)81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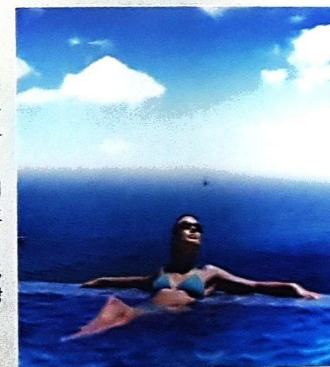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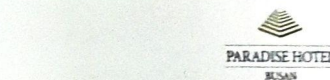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씨메르 춘차 새로운 개념의 야외스파 오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가장 인기 있는 장소였던 노천온천 공간이 약 4개월 간의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스파공간의 이름은 바로 씨메르(Cimer), 스파 씨메르는 호텔 투숙객에 한하여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춘차(春止) 봄맞이 스파 패키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기간 2012년 3월 31일 ~ 5월31일) 춘차 봄맞이 스파 패키지의 혜택은 씨메르 무료이용과 더불어 씨메르 내부 Aqua Bar에서 신선한 생과일 주스2잔이 무료로 제공되고 스파 오픈기념 이벤트인 황금알 찾기 이벤트(일-목)와 낭만적인 통기타공연(금-토)과 함께 제공되는 와인 1잔의 혜택도 누리볼 수 있다. 패키지요금은 주중(일-목) 씨티뷰 기준 200,000원부터. 주말객실 이용하거나 본관이용시, 혹은 객실의 전망에 따라 요금이 상향되며 특정기간(4월12일~16일, 4월30일)에는 주중 상관이 별도로금이 부가된다.

예약 : www.busanparadisehotel.co.kr 문의 : 051)749-2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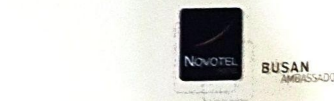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 지금은 힐링 타임! 노보텔 부산 '힐링 인 스위트 패키지'

요즘 참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인 힐링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뜻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힐링 타임을 위해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은 '힐링 인 스위트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힐링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만약 당신만의 힐링법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의 '힐링 인 스위트 패키지'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격은 31만원부터이며 주말 및 객실 타입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추가된다. (봉사료 및 세금 별도)

패키지 판매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 www.novotelbusan.com) 문의 : 051)743-1234



# 'K팝, 드라마 한류 붐' 타고 의료관광객 몰려온다

지난해 3558억원 증가, 1인당 249만원 지출



▲ 러시아 환자가 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앙영상센터에서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ET-CT) 장치를 통해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K팝 등 한류 붐을 타고 작년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11월 캐나다인 로드리 맥에천 씨(48)는 부인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국립암센터에서 뇌암 양성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도착 당시 그는 걸을 수도,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하루 45분씩 양성자 치료를 두 달간 받은 뒤 귀국할 때는 혼자 칫솔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맥에천 씨는 거동은 불편했지만 관광을 다녔고 부인은 한국음식과 문화를 배우는 데 재미를 붙였다. 이들이 한국에서 지출한 돈은 약 10만달러, 의료관광객 1명을 유치해 중형차 4~5대를 파는 효과를 낸 셈이다. 지난해 4월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부인과 함께 온 로버트 갈리아 씨(64)도 두 달 동안 의료비와 체재비 등으로 8만달러를 썼다.

K팝, 드라마 등 한류 붐을 타고 의료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일 작년 방한한 의료관광객이 11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된 2009년 6만210명, 2010년 8만178명으로 연

평균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509억원이던 의료관광 수입도 2010년 2304억원, 지난해에는 3558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249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의료관광은 체류기간이 길고 대부분 가족까지 동반해 의료비와 체재비 등으로 쓰는 돈이 일반관광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으려면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화가 시급하다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의료관광 선발주자인 태국 인도 등이 2010년 각각 156만명과 73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2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영리병원을 도입해 다양한 투자와 상품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병원들도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의료 서비스 위주여서 치료 분야에 대한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제4회 '2012부산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 행사개최

부산항만공사, 정부, 민간투자 10조원 투입, 2014년 까지 마리나시설 완공 계획



제4회 2012부산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BIMTC)이 오는 9월7일~9일까지(3일간) 열린다.

올해 행사는 개최장소를 기존의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벅스코(BEXCO)로 옮겨 개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롯데호텔 개최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일반인 접근성 어려움 △전시공간 협소 △타행사와의 연계 효과 부족 △주말특수이용 어려움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대한 해운대 소개부족 등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행사는 같은 공간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타분야의 박람회(부산국제관광전=행시기간 중 관람객 9만여명, 부산 IT엑스포 = 행시기간 중 관람객 10만여명)들과 연계 계획을 통해 보다 큰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BIMTC는 올 6월 '제2벅스코' 개관에 따른 전시공간 인지도 향상으로 인해 증진보다 홍보효과가 크게 고안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 유일의 의료관광 박람회인 올해 컨벤션 행사는 지난 세계여행사보다 3배가량 커진 규모속에서 치러지게 될에 따라 각 참가기관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해당 기관들을 국내외에 더욱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 '의료韓流' 1억달러 넘었다

성형·검진목적 관광 급증 2006년 5900만달러~2011년 1억달러 돌파

외국인이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이 1억달러를 넘었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2011년 '건강 관련 여행(의료관광) 수입은 1억 1600만달러에 달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치다.

건강 관련 여행이란 외국인이 수술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의미한다. 환전 당시 외국환은행에 밝힌 여행목적이나 신용카드 결제 사용처를 토대로 구분해 집계한다.

의료관광 수입은 2006년 59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007년 6800만달러, 2008년 7천만달러, 2009년 8300만달러, 2010년 9천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1억달러를 돌파했다. 내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외국에서 지급한 건강관련 여행지급액 1억9000만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발전하자 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성형수술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외과(14.0%)였다. 그 다음은 내과(13.5%), 건강센터(13.1%), 가정의학과(9.8%), 산부인과(6.6%), 정형외과(4.9%) 등 순이다.



# 부산 항노화 의료관광화 산업 중점 육성 개발 의료,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조차 없어

부산의 항노화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재로선 항노화 제품 연구·개발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강점인 의료서비스산업, 관광·컨벤션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잘 활용하면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는 항노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구우희 선임연구원은 "제품의 상용화, 마케팅, 항노화 의료 관광화를 초점으로 한 산업군 형성이 필요하다"며 "지역환경에 적합한 항노화 특화 분야를 개발해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항노화 산업, 부산의 현주소

항노화제품화 기술개발사업에는 향후 4년 간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 민자 20억 원이 포함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의 주관 아래 동대대, 동의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노화성 근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소재와 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령자의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근 기능 향상과 근력 증진 제품을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국가 의료비 절감과 생산적 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와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연구원,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의 경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핵과학특화단지 내에 약 10만㎡ 규모의 부지까지 선정해 둔 상태다.

항노화 산업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장비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할 항노화산업 지원센터는 정부가 관련 예산 50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 지역대학에도 노화연구소

지역 대학도 잇따라 노화 관련 연구 기관 설립에 나서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2004년 장수생명과학기술연구원을 설치했다.

동아대도 지난해 3월 동아 항노화연구소를 개설, 지난 1년 간 두 차례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이한 점은 의학이나 공학뿐 아니라 인문·사회학까지 아우르는 항노화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 의대 정세일 교수는 "질병, 의료서비스, 산업 등 항노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활동과 지속적인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적 항노화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명대는 의공학을 활용, 뇌파 과학을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항노화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 마스터플랜부터 짜라

이처럼 각계에서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조차 마련해 두지 못한 상태다. 항노화 산업은 현재 시의 10대 전략산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시기 단속히 국가 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따오는 데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김교정 교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조직, 건물, 센터 같은 것을 부산에 가져올 생각만 한다"며 "항노화 산업을 기존으로 산업,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마스터 플랜을 위한 용역 추진비가 올해 예산에 포함돼 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에 고령친화산업이 포함돼 있고 앞으로 항노화 산업이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실

# 부산 중구, 2011년 관광진흥시책평가 '우수'

부산 중구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1년 관광진흥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기관표창과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해 동안 구·군별로 추진한 관광진흥시책을 관광 기획, 관광사업, 관광사업, 관광마케팅, 서비스개선, 의료관광 등 총 6

개 분야를 기준으로 2개월 동안 분야별로 평가후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됐다.

중구는 앞으로 문화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축제,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40계단일일 역사테마거리조성, 부산영화제합법박물관 건립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우리모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7080세대들에게



김봉오 / 본지 편집장

뱃님이나 봐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있다. 모로코의 수도 카사블랑카는 독일군을 피해서 유럽을 탈출하려는 많은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카페를 경영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험프리 보가트에게 뜨내기 애인이 묻는다 "어제 밤에 어디있느냐"고 "그런 옛날일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험프리가 대답한다. 다시 애인이 묻는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느냐"고 험프리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그런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우리는 매일 허둥대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더욱 모르는 채 살아간다.

세익스피어는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희극에서 인생을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누었다. 세상은 모두가 하나의 무대, 인간이란 남자나 여자나 한날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가 그 무대에 등장했다가 7막(幕)을 연기한 다음에 퇴장한다. 첫째막에는 유모품에 안겨 칭얼대는 어린이 역할을 한다. 다음에는 가기싫은 학교를 억지로 다니는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애들처럼 언가나 부르는 연인노릇을 한다. 다음에는 싸움을 좋아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명예욕에 불타는 군인이

된다. 5막째에는 그럴까한 격언을 외가리며 우영부리고, 그러면서도 제법 자기 일에는 열심인 개관산 노릇을 한다. 그러다 6막 들어오면 몸에도 맞지 않는 겹옷을 때의 옷을 걸쳐 입고, 허리대는 조르조리를 깨한 일빠진 늙은이가 되어 버린다. 마지막 막에서는 노랑쥐의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없는 어련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듯이 사람의 인생은 어리석음의 연속이다. 인생을 한 두 백년으로 늘려 준다 해도 어련시절과 노인시절을 빼면 정말 인간다운 삶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50년이다. 또 잠자는 시간과 밥먹는 시간을 빼면 노년 밖에 안 남는다. 여기에 또 병이며 걱정거리 빼앗기는 시간을 빼면 1년 밖에 남지 않는다. 그 짧은 동안에도 자기가 죽을 다음에 부산과 경북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인생처럼 고달픈 것도 없다.

장자(莊子)에는 '노비가 노예가 되어서야 겨우 4년 동안의 활약을 겨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상 단서는 모두가 변한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허위일수도 있고 오늘의 공경이 내일의 부경일수도 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길을 지켜나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 이 풍진(風塵)한 세상

몇년 전 제주도에서 2년 째 근무한 적이 있다. 일과시간이 끝나거나 휴일이면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오름 산책로를 따라 간다 보면 편백나무, 비자나무가 키 높이로 자라 잔디가 둘러쳐진 곳에 2-3평 남짓한 잔디밭이 있다. 그곳에 누우면 마추바라보이는 포구에는 단아 하면서도 제 자리를 잘 잡은 하얀 등대, 가까운 곳에 또 빨간 등대가 낚시꾼들의 습터가 되기도 하고 밤이면 뱃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을 가져다 주는 등대가 보인다. 그리고 바다를 닮은 파란 하늘에는 시무룩 같은 충충구름, 수제비 같은 뾰연뾰연 구름, 솜 같은 뭉개구름, 그리고 돈데먹고 도망가는 뿔날리는 계주구름 등 그 형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름이 제일 많은 곳은 제주도도 구름이 하늘을 꼭 매웠을 때를 10이라 했을 때 6.3으로 구름이 낀다고 한다.

오방(五方)에서 오색(五色) 구름이 솟더니 구름이 솟았다는 개백

신화에서부터 제주도는 구름과 인연이 깊다. 도무진(道眞) 신화에 서도 한 사나이를 두고 바람운과 구름운 자매(姐妹)의 절두 바음이 한라산을 무대로 하여 벌어지는 대목이 있다. 그때부터 제주도의 기상을 지배하는 바람과 구름의 싸움이 제주도 무속신앙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하늘은 파란색서 하늘이기를 포기 했을 것 이라고 보들레트는 웃었고, 구름이 없으면 밤으로 창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요, 왜 사냥고 돌아도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김상봉의 시도 생각난다. 나는 희색의 도시에서 끝이 보이지 않은 절망감을 느낄 때 그런때면 풍흔을 위한 탈출구를 찾아 곧길 여행을 떠난다. 이 떠남은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뿔어진 나의 내면을 찾는 유일한 방편이고 또 내 인생의 여분의 삶마저도 이 순간이 지나면 상실 돼 버릴것 같아서다.

뒤돌아 보면 아무도 없이 혼자인지도 모른 채 이 혼돈과 무질서의 풍진한 세상을 걸으면서 오늘도 길을 걷는다.

<칼럼>

# 부산의 의료관광산업은...

의료관광산업 선진화는 지역의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을 동북아 의료관광산업의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각계로부터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김종규 /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대외협력본부장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은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산업과 더불어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이고 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신산업의 영역중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인도, 태국, 중국 등의 주변 경쟁국들이 의료 관광산업 활성화로 외화수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의 나라들이다.

의료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일반관광객의 4배 가까이에 달하고 있어 매년 관광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광수지 개선 측면에서 하루 빨리 국가적으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찍이 스탠포드대학 연구소에서는 관광산업 분야의 퇴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가치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여왔으며,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이 각광받는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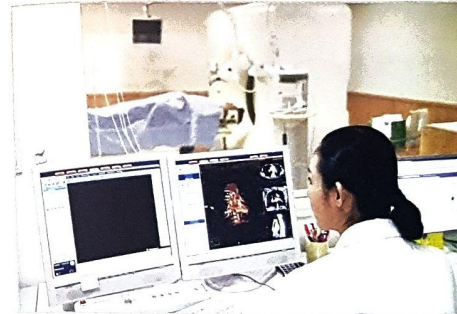
근래에 와서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의 몇군데 도시들이 광역자치체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른 의료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의료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하여 의료계,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과 유관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7년 5월에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를



발족시킨바 있다.

그동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의료포럼과 전시회 행사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부산은 5개의 양, 한방 대학병원과 27개의 종합병원, 2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산, 바다, 강이 잘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부산은 동남권 800만의 의료시장에 최고의 의료시설과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후방시설인 컨벤션과 관광, 휴양시설을 완벽하고 있다.

여기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가속기 시설까지 추가되고 의료산업의 핵심주체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장기요양 관련 의료상품을 개발한다면 의료관광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강점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국내,외적으로 부산이라는 지역과 선진 의료기술의 인지도를 함께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은 미래 의료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주체와 의료산업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의료산업을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켜 관광부족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의료관광경쟁을 분할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의료관광산업 선진화는 지역의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을 동북아 의료관광산업의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각계로부터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부산시로부터 민간차원의 사업추진 현계를 극복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따라야 할 것이며, 의료계와 관광업계 차원에서는 소프트 분야의 다양한 지원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사장님, 알고계세요?

### 16억 중국인들은 은련(CUP)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

중국 관광객 은련카드  
소비 캠페인 매출 255% ↑

2010.11.08 김지은 기자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중국은련카드사, 비씨카드사와 공동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련카드를 이용해 35만원이상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등 소품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 매출액인 503억에 비해 255%증가한 1265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국경절 특수기간(10월 1~7일)이던 10월은 명동 특구에 아치, 거리해너, 현수막, 전단지 배포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캠페인을 적극 알려 국내 은련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10월 5만 3000건 189억에 비해 230% 증가한 12만건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은 318%, 신세계 270%, 현대백화점 81%등 유통업계 역시 중국 관광객 소품 매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은련카드 가맹점, 이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요 가맹점들이 은련카드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주요 은련가맹점 현황

- 면세점 롯데면세점(서면점, 김해공항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 특급호텔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 쇼핑센터 영두산공원쇼핑센터, 광복로 일대, 남포동 지하상가

●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국내 모든 비씨카드 가맹점은 '은련카드 가맹점' 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뱅사 또는 번대리점에게 전화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완료 사실  
전화 통보

'은련카드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 1588-7418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진행

- ① 은련카드 가맹점 특약서 체결
- ② 비씨카드의 은련 특약가맹점 전신등록
- ③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은련카드 테스트
- ④ 은련카드 스티커 부착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모든 사항을 편리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가맹점 가입 완료

● 은련카드 가맹 시 가맹점수수료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은 비씨카드 기어사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여행사 보증을 여행공제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자, 선박 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을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니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현대딜투어, 세종투어올여행, 롯데관광개발, 오케이투어서비스(주)투어비스, 레드캠투어, 맥여행사, 자유투어, 노랑풍선, 한진관광,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포커스투어, 하니뉴스, 걸리버트래블러스시어이트, 신한투어, 여행사닷컴 등

-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철 도 | 한국철도공사
- 선 박 | 큐슈어객철도, 대여행사, 한일고속, 대이고속해운, 씨월드고속해미리,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 · 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 팩스 02-757-7490

KATA 02-752-8692	강원 033-242-0089	부산 051-463-3111	충북 043-231-5563
서울 02-757-7482	충남 042-254-5465	인천 032-432-4590	전북 063-287-6292
대구 053-746-6407	전남 061-285-0833	대전 042-226-8413	경북 054-745-0750
광주 062-224-4486	경남 055-212-1345-6	경기 031-255-8424	제주 064-742-8861
울산 052-275-2412			

# BUSAN ↔ SHIMONOSEKI

매일운항(DAILY) 08:00 도착  
20:00 출발

해상보다 빠르게  
기차보다 정확하게  
항공보다 저렴하게



43년지기 부관훼리!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선내 시설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釜關 FERRY  
www.pukwan.co.kr

본사 TEL 051) 463-3165  
FAX 051) 463-2361

지사 TEL 02) 738-0055  
FAX 02) 738-5200